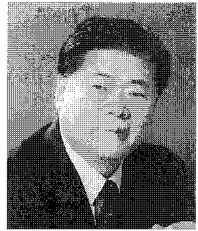


# 발효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위기 극복



발표자 : 두재균 총장  
(전북대학교)

02

발효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위기 극복

현재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되풀이 되고있는 농산물 가격파동과 늘어 가는 농가부채, 쌀값 하락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구제역, 콜레라 등 일상화된 가축질병과 홍수와 가뭄, 폭염의 자연재해로 인해 자연적인 농업 여건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속에 2004년 말 협상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쌀 수입 관련 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다자간 농산물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기정사실화 해가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비등이 불가능해지고, 1차농산물만 생산하는 농민들은 소득이 감소되어 농업붕괴의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에서 1차 농산물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생산하여 산업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1. 농업위기

### 가. WTO 이전의 농업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업중심 사회에서 공업 및 상업, 정보 사회의 변화를 피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에 이르게 되었다. 고도성장에 이루기 위한 저물가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인구의 이촌향도를 증가시켰으며 넘쳐나는 도시인구로 인해 저임금 정책은 유지될 수 있었다. 60-70년대 수출증진을 위한 저임금 정책은 농산물 가

격의 안정으로 이어져, 농업 인구의 감소가 야기되었다.

농가인구는 1980년에 28%였으나 그 분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7%에 이르렀다. 60세 이상이 58%에 이르러 농업인구의 노령화는 심각하며 노령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농법의 도입에 둔감하고 창의적인 영농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나. WTO 시대의 농업

우르과이라운드 (UR; 1987년-1993년) 협상의 타결은 농산물 무역의 국가 간 장벽을 없애고 이를 강제할 국제기구인 WTO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는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농산물 1,312개 전품목의 수입이 개방되어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1년에 과일가격은 평균 35% 감소했고, 농가당 실질 농업소득은 1994년에서 2002년 사이에 16%가 줄어들었다.

농가부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채가 1억원 이상인 농가가 47%에 달하고 4,000만원 이하인 농가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농가도 급증하고 있다.

## 2. WTO 체제의 국가정책

외교통상부는 지난 40여년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GATT/WTO가 주도하는 다자무역체제에서의 참여를 통하여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1년 11월에 선언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우리경제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무역 및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지역무역 협정으로서 통상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무역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43% 수준이며, 2005년에는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칠레와 최초로 FTA를 타결한 이래 주요 교역국들과 FTA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무역자유화는 우리의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세계무역자유화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 및 일부 서비스업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무역 자유의 물결에 농업도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농업의 최대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민감한 사안이 쌀에 대한 개방이다. 쌀 또한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에서 비켜서지 못하고 있다. 10년전 UR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아 1995년에 국내 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저율관세물량(TRQ)인 5만1천톤을 의무 수입하였고 그 양이 점차 증가

하여 올해는 4%에 해당하는 20만5천 톤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 쌀 관세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려는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지 관세화할 것인지 정부에서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협상에 나서고 있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량만 수입하면 되니까 연도별 쌀 수입량을 예측하기가 쉽지만, 유예 대가로 의무 수입물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화할 경우에는 높은 의무 수입물량 증량을 피할 수 있지만, 국제가격, 환율변동,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지금보다는 개방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경작규모 확대와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한 장기적인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 3. 국가의 농업 대책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농업인 대표 및 소비자 대표 등 각계 각층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WTO/DDA 농업협상, FTA 및 쌀 협상 등 새로운 국제농업 질서변화에 대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농업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식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되었다고 보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는 9대 핵심 농정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첫째,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쌀 산업은 6ha 수준 7만호, 축산업은 2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를 고



령농이 1ha 경영이양시 월 24만 1천원씩 최장 8년간 지급하는 연금식으로 개편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이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로 했다.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생산자를 전국단위로 조직화하여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천명(2013년까지 1만호)을 선정하여 이들을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창업농 양성전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을 2억원까지 지원하고, '농업인턴십제도' 및 지방대 교수를 활용한 '창업농후견인제도'로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평가하여 매년 3,500명을 선정하고 종합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영농정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2003년 9.4%인 직불제예산비율을 2013년에는 23%까지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사과?배 등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하고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 회생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해 GAP 관리지침을 만들고, 채소, 과일, 쇠고기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 제도를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 감축한다. 유기질 비료공급을 늘리고,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확산으로 소비자가 만족하고 국토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농업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충하초와 같은 기능성 식품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올린 사례처럼 농업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20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 5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체제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여덟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03년 연간 8만6천원에서 2005년 이후에는 최고 25만 7천원까지 높이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 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가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ha 미만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인프라를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홉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하며, 자연경관, 전통문화,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이 2013년까지 1,000개소 조성된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로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농촌주택 구입시 양도소

득세 면제와 지방세의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농 교류 센터 설치 및 도시민의 농협출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가 제시한 내용은 농업의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연결 짓는 식품으로서의 농산물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넷째,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과 생산 이력제도 도입,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대정책, 여섯째,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 일곱째, 수출에 특화된 생산, 물류, 브랜드 체계강화, 아홉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항목은 식품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본 농정핵심과제에서의 정책대상을 기존의 농업중심에서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4.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산업(식품+식품첨가물+기구, 용기, 포장지)은 2002년도에 약 36조3천8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GDP의 5.9%를 차지하였고 제조업 총생산액의 20.3%를 차지하여 국내 제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별 부가가치 순위는 전자, 화학, 자동차 산업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제조 가공관련 업소는 25만여개(이중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약 19,000개), 식품접객업소는 약 73만개에 달한다. 19,000개 식품제조 가공업체 중 종업원이 10인 이하인 업소가 78%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47개 업소가 식품산업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동시에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국식품공업협회와 한국식품연구소가 지원한 '식품산업 발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육성방안'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환경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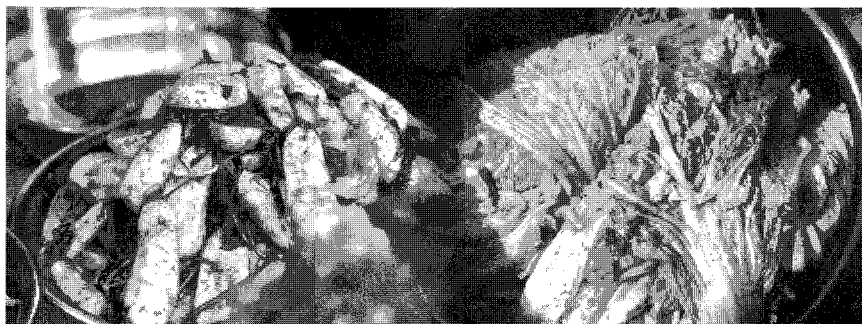
석한 결과, 강점은 풍부한 인적 자원, 소비자 요구 파악 용이, 시장 변화에 대한 높은 대응력, 국제경쟁력있는 전통분야의 보유, 국가 신인도 상승 등의 원인을 들었다. 또한 단점은 R&D 투자 미흡,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물류와 마케팅의 후진성, 식품안전성 확보미흡,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대외경쟁력을 들었다. 내수경기의 회복세, 지리적으로 수출에 유리, 신투불이 사회 분위기, 우리 전통식품(김치 등)의 인지도 확대 등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WTO 통상압력과 농산물 수입 개방, 검증되지 않은 식품안전 및 건강관련 정보법률, 식품진흥정책 미흡, 새로운 국제인증제도 도입으로 수출 비용 상승, 안정적 원료 공급의 결여 등을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웰빙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과, 우리 전통식품의 인지도 확대 및 동양식문화에 대한 서양의 관심,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풍부한 인적·물적자원 등을 종합해 보면, 식품산업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5.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의 성과와 의미- 지역거점 대학의 역할

현재 자유무역협정에서 국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1차 농산물을 2차 가공식품으로 재생산하는 산업이 필요하며 그 아이템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웰빙식품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발효식품이다. 발효식품은 건강을 선호하는 현대인에게 있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 슬로우 푸드이다. 오염되지 않는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청정재료를 이용해 숙성과 발효 등 전통조리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0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를 하면서 이런 발효식품의 산업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실제로 전국 및 세계 8개국 225업체 360부스가 참여한 대형행사를 진행함으

로써 발효식품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갖추었으며 31만명이 관람, 전국적인 발효식품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로 10월 24일 실시된 B2B 행사에 70개 유통업체, 30개 무역상



사가 참석하여 205억원의 구매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해외무역상사가 참여하여 수출판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발효식품의 효능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국제학술회의때 3일간 발효식품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한국이 발효식품 종주국임을 인정,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으며 “앞으로 안전성과 인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건강식품으로서 주목을 받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가한 업체중 우수제품을 18개 선정하여 4개 업체에 농림부장관상을, 4개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을 수여하였으며, 10개 상품에 대하여 IFTF 우수상품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이와 같이 발효산업 육성은 우리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국제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또한 지역의 중심대학인 전북대학교는 2004년에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 유일의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를 유치하였고,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이 지방연구중심 대학지원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하여 기능성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결론

그동안 고도화된 산업화가 되면서 이촌향도가 늘어

가고 농업에 대해 정부 마인드가 확실하지 않아 투자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무계획적인 생산과 판매로 인한 가격파동 그리고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각종 질병 등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또한 WTO 체제가 확립되면서 점차 소수의 젊은 농민들조차 땅으로부터 유리되어 가고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결국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경제가 무관세 체제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 산업과 미래지향 체제도 농업사회가 아닌 정보화 첨단사회이기에 우리 농촌은 이 안에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은 건강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가지 기반과 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인식하고 국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학연이 협동하여 고부가가치의 식품을 개발·육성·발전시키며 내수판매와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통업의 발전도 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식품이 많이 개발 생산되고, 농업위기 극복의 표본을 제시하여 훗날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 성공한 식품산업의 경험을 전수받고 더불어 관광산업까지 발전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위 내용은 2004년 11월 제45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2부행사에서 주제발표된 자료입니다.